

한국인 첫 국제사법기구 수장이 걸어온 길...송상현 회고록 출간

송고시간 2020-12-17 14:19



김준억 기자



송상현 ICC 소장 퇴임 환송 리셉션 연설

(헤이그=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2015년 3월 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퇴임 환송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5.3.6 songb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1941년 서울 창동의 한옥에서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의 손자로 태어나 한국인 최초 국제형사 사법기구 수장이 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회고록이 나왔다.

송상현 명예교수가 쓴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나남출판)는 창동 생가에서 보낸 유년 시절부터 200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 선임 이후 12년 간 재판관과 소장으로 일한 경험까지 되돌아본 기록이다.

비망록과 일기 등을 토대로 완성한 원고지 5천 장 분량의 회고록은 새로운 정의의 길을 열고자 노력한 여정을 객관적으로 풀어낸다.

그는 1945년 12월 할아버지 댁 아래채에서 잠자던 다섯 살 때 저격범의 총탄에 할아버지가 암살되는 비극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처음 겪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나자 미처 피란을 가지 못하고 명륜동 집 지하실에 몸을 숨긴 가족들을 위해 3개월 동안 연고지인 창동까지 가서 식량을 구해오기도 했다. 당시 길가에 부패해가는 시신들을 보면 '인간은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했다고 한다.

이런 유년 시절의 경험은 세계평화를 지키는 전 인류적 사명의 무거운 짐을 왜 기꺼이 짊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된다.

그는 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으며 이듬해 고등고시 사법과도 합격하며 젊은 법률가로 성장한다.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는 해상법계 세계 최대 로펌에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무거운 운명을 진 그는 1972년부터 35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 몰두하면서 법학계의 뿌리 깊은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는 데 힘썼다.

회고록의 백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2년 동안 ICC 재판관, 소장으로로서의 활약을 전하는 내용이다.

신설 국제기구였던 ICC의 수장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회원국을 확대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국가원수들과 회담을 했으며 유엔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했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7 14:19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